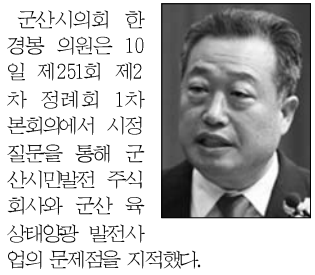


육상태양광사업 문제점 지적

환경봉 군산시의원, 제251회 정례회 본회의서 시정질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와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공모펀드 설계부터 부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적격, 공석 및 이사회 파행, 제갈승래그로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자체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 펀드 모집은 시도가 못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또한 최초 시민참여펀드 설계 단계부터 군산시 행정의 부실함이 드러났으며, 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처벌금지 조항 등에 따라 군산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하여 펀드를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군산시민펀드 모집계획을 공표하고, 결국 금융감독원의 지역 제한 불가 의견에 따라 현재 군산시는 관내 은행에서 우선 판매하고 진여분은 다른 지역까지 판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은행자점 등의 장소를 제한할 뿐이어서 타 지역민이 얼마든지 군산시 소재 은행에서 펀드를 살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한 의원은 "군이 총계도 군산시민에게만 펀드가 판매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군산시의 1인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참여 한도 기준을 따르자면 예정액 563억 원에 대하여 최소 2815명만 참여가 가능하여 10월 말 기준 군산시 인구 282,819명 대비 고작 1.07%의 시민만이 혜택을 누리는 꼴이 되며, 심지어 최대 5억 원까지 참여 가능한 법인을 고려한다면 실제 군산시민의 참여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냉철한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소모시키고 형평성이 결

여되는 시민 참여 펀드에만 연연하지 말고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군산시의 공익자금으로 활용하여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을 권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는 과거 군산경찰서 집행위원장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데다가 임원 공개모집 공고상 자격이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라는 등의 요건 충족이 의문시되는 비전문가 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결속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당사지의 본업인 안경원을 계속 운영하다 결속제한 규정 위반으로 최근 사임하여 현재는 공석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이사회 파행 운영으로 대표이사 공석인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 시장이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19일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제가 순환 골재였는데 9일 만에 돌연 제갈승래그로 석연치 않게 설계변경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단체의 제갈승래그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공이 지연되었으며, 가까스로 지난 2022년 6월 30일 세안금액발령으로부터 일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군산시가 월명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총78억원(부지매입비 포함)을 투입해 조성한 구)시청광장을

“대표적인 쉼터 · 공연 장소로”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구)시청광장 활성화

군산시가 월명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총78억원(부지매입비 포함)을 투입해 조성한 구)시청광장이 각종 축제, 버스킹, 플라마켓, 음악회 등 문화·관광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시는 기존 로데오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4,373㎡ 부지에 중심 시가지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각종 축제 행사를 위한 공연 무대를 설치, 구)시청광장을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가 있어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고, 잔디광장 및 관광 안내소가 설치돼 만남의 장소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어청도 등대를 형상화해 조성된 경관조명 분수대가 있어 볼거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시간 여행 축제의 주요 행사 무대 및 민간에서 주도하는 로컬라이즈 군산 페스티벌, 도시재생 플라마켓, 합창 공연 등 여러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구)시청광장 조성 이후 최근 3년 평균 100일 정도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군산의 대표적인 행사 무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구)시청광장 대관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도시재생과 재생관리계(☎454-4474)로 하면 된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구)시청광장뿐만 아니라 근대 쉼터, 모파 쉼터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군산시민과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쉼터 및 공연 장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한 의원은 "군산시는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이용한 50억 원의 재출자를 통해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를 SPC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99MW급 총사업비 1,268억 원 규모의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군산시는 PF 대출금 963억 중 563억 원은 시민참여 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으로 시민참여 펀드 참여자에게 연 7%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에 포설한 제갈승래그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최근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채택

서은식 군산시의원 대표 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0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동 중단 이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5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10월 선박블록 절단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

군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부가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발주량의 44.4%를 수주하며, 세계 수주 1위를 탈환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의 글로벌 발주량 및 수주량 증가에 따라 조선업 생산 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조선업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조선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9,500여 명에 달하고 물량 작업이 더 늘어나는 내년 6월 중에는 1만 1,100명이 필요한 전망이지만 조선업 불황의 여파에 따른 장기간의 구조조정과 청년들 사이에 조선산업이 3D 업종·저임금 업종

이라는 인식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조선산업 시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인력양성 및 공급 확대가 선제 되어야 하며 정부가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함에도 기획재정부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군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120억 원의 예산 중 6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 다른 조선 해양미래혁신 인재양성 허브사업의 예산 8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라고 지적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지역 소식통

군산시,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 열어

군산시가 지난 1일 '군산시 고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8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고흥사랑기부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만장일치로 동군산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장 석상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으며, 시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이 담긴 공개모집 공고(안)에 대한 의결을 했다.

공고문에는 공급업체 선정기준, 공모 자격, 준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군산시청 기획예산과(5층) 고흥사랑기부팀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공고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임)

/군산=김관근기자

익산시, 반려동물 생태계 구축 전문가 세미나 개최

익산시가 동물용 의약품 인프라를 토대로 반려동물 생태계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가 주관한 '익산시 반려동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대학교 진수영에서 민·관·산·학·비·아·이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5대 그린바이오 분야 중 익산의 주력 신성장 산업인 동물용의약품 분야(반려동물)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한 6명의 지정토론자는 전북권 반려동물 헬스케어 벨트 구축, 익산의 R&D 및 인력 개발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전북도가 보유한 국내 유일, 최초의 바이오헬스 인프라 차별점을 부각해 도내 주요 지역 연계 반려동물 헬스케어 벨트 구축 방향이 제시됐다.

시는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등 인프라가 조성되, 반려동물 헬스케어 벨트 구상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금마면 생태관광 허브 구축 '속도'

익산시가 금마면 일대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생태관광 1번지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10일 시는 서동농촌테마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생태학습원, 예코캠핑장, 생태놀이터 등 관광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 이후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우선 생태학습원은 방문자 안내센터와 교육공간까지 함께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추후 이곳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 우수한 생태자원을 토대로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한다.

가족 단위 체험공간인 예코 캠핑장과 생태 놀이터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 및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익산=이재훈 기자